

2022 Januar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12월 동향

FOMC의 내년 3월 테이퍼링 종료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로 인식되며 금리 하락 추세 나타내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제한적 인식, 수급상 내년 공급 우위 반영 등으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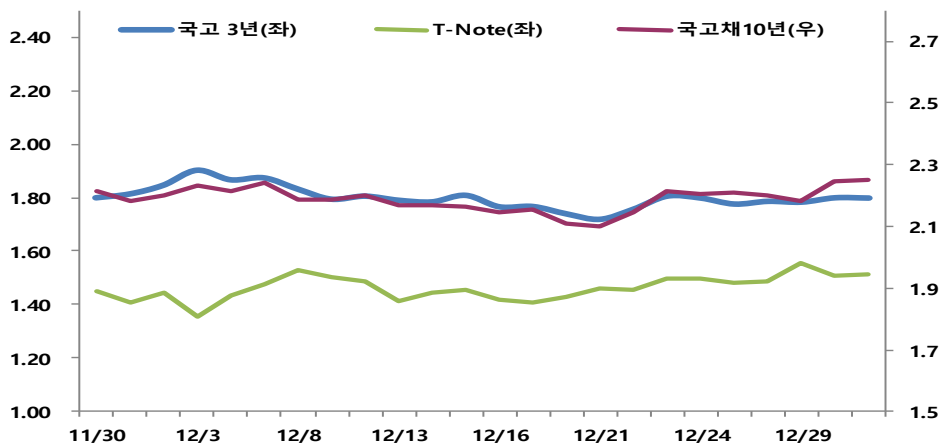
오미크론 영향 반영 속에 출발한 국고채금리는 내년 확장적 예산안 이슈와 한은의 매파 성향 약화 등이 반영되며 등락 시현

FOMC의 매파적 테이퍼링 강화에도 시장의 불확실성 인식에 금리 영향 제한되었으나, 유럽권역 중앙은행의 매파적 색채가 오히려 금리 상승 압력 높이는 형국

오미크론 변이의 등락이 반복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이에 연동 흐름 보이다 연말 수급 장세 속 소폭 상승

-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대에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후, 내년 예산안 확장 통과에 따른 공급 확대 요인에 상승 후, 한은의 매파적 성향 약화 인식이 반영되며 재차 하락 시현
 - 월 초, 국내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시사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하락 출발 후 오미크론 추이 살피는 가운데 내년 확장적 예산안 통과 영향 반영하며 상승 전환
 - 이어 오미크론 발 안전자산 선호 영향 반영하며 하락 추세 전환했으나, 정책 당국의 통화신용정책 언급이 시장 예상보다 덜매파적이었던 인식으로 하락 지속 후 미 CPI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세 시현
- 중반, FOMC에서 테이퍼링 규모 확대 결정에도 시장 선반영과 한은 총재의 비둘기적 스탠스로 하향 압력 나타낸 후, ECB와 BOE에서의 매파적 긴축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흐름으로 전환
 - 중반, FOMC에서 테이퍼링 종료를 3월로 앞당기는 매파적 결정에도 국고채 시장 선반영된 영향 속에 한은 총재의 물가설명회에서의 비둘기적 스탠스 반영 등으로 하락 추세 전환하는 모습
 - 하지만 대외적으로 ECB와 BOE가 매파적 긴축 시그널을 보냄에 따른 영향이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를 견인한 측면이 국고채 금리의 상방 압력을 다소 높이는 흐름 시현
- 후반,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과 완화 양상이 반복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변동에 연동 흐름. 이후 연말 수급 장세 속에 소폭 상승 흐름 나타내며 마감
 - 후반,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 주요국가 중심으로 확산과 완화되는 흐름 속에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영향 반영 등으로 국고채금리 등락 양상
 - 이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영향이 세계적 부스터샷 접종 이슈 등으로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대내적 수급상 차년도 장기물 발행 확대 소식 등의 공급 우위 요인 등으로 상승 추세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12월 평균
국고채(3년): 1.80%
T-Note(10년): 1.46%

1월 전망

미 금리 인상 기대, 오미크론 등락에 따른 경기 개선 부담이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인플레이 압력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단기 구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1.90 ^(F)	1.95 ^(F)	2.05 ^(F)	2.15 ^(F)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방역 강화로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인상 기초의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 미칠 전망

연준의 테이퍼링 강화 결정 이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 속에 인플레이션 지속이 강화되는 측면은 국내외 금리 상승 영향 요인으로 판단

1월 국고채(3Y) 금리는 1.85-1.99% 예상

- 오미크론 파급 영향에 따른 다소의 경기 우려 속 전월 국내 무역 적자 소식 등은 경기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한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고채 금리 상승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

 - 위드코로나가 방역 강화로 다소 후퇴한 가운데 전년 말 국내 수출 관련 무역수지 적자 등이 성장 경로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럼에도 '22년 성장 경로를 유지하려는 한은의 스탠스가 매파적인 가운데 금융 불균형 완화까지 고려한 추가 금리인상 기대 등이 국고채 금리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전월 연준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 여기에 시장의 기대가 3월 이후 즉시적 금리인상을 기대하며 그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 국채금리의 장단기 상승세 유지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FOMC의 테이퍼링 결정 이후로도 인플레이션 지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기대가 연속적으로 조기 금리인상을 반영하는 상황이 미 국채금리 및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오미크론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시 미 장기금리의 하락 반전이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속에 경기 불확실성 반영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를 배제할 수 없을 전망
- 대내적으로도 높은 물가 상황, 추가 금리인상 요인이 금리상승의 경계 요인이거나 상당 부분의 선반영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수급상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 감소 등은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됨

 - 대내적 높은 물가 지속, 추가 금리 인상 요인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보이나 상당 부분 선반영 인식 속 방역 강화에 따른 소비자 심리 지표 하락 등 경기 하방 요인 확대 가능성이 금리 상단 제한할 전망
 - 수급상 대선 공약 관련 재정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올해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가 감소된 측면 또한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연주 금리 인상의 매파적 기초 · 한은 추가 금리 인상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통화정책의 상당 부분 선반영 · 수급상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 감소 전망 · 전월 국내 무역적자 전환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12월 동향

12월 FOMC의 3월 테이퍼링 종료에도 시장 선반영 등으로 영향 제한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등락과 수급 흐름 반영한 가운데, 미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 지속 등으로 상방 압력 속 강보합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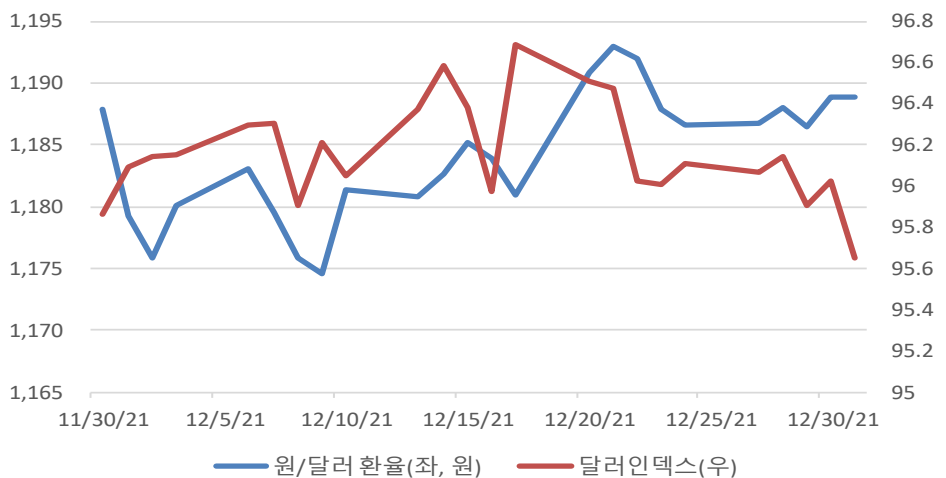
오미크론 변이에 확산과 진정 우려 반영하며 등락 후 대내적 수급 요인에 원화 강세 보였으나,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인식 등으로 달러 강세 우위

FOMC의 테이퍼링 3월 종료 선언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에 따라 달러 약세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지속이 주요 시점에 위험회피 강화하는 영향 제공

연말 포지션 변경에 따른 수급 상황에 등락 나타난 가운데 향후 야기될 가능성 높은 미 국채 금리 급등 양상에 원화 약세 흐름 보이며 마감

- 월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조기 금리인상 기대 약화 반영 출발 후,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위험 선호 전환하다, FOMC에서의 테이퍼링 강화에 대한 시장 인식 등으로 환율 상승
 - 월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의 시장 기대를 누르며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했으나, 이내 변이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 전환에 따라 환율도 상승 흐름 전환
 - 이어, 중국 헝다 파산 위험 재부각이 위험회피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다 대내적 수급 우위에 하락 전환 보였으나, FOMC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시장 인식 등으로 크게 상승 전환하는 양상
- 월 중반, 미 CPI의 예상치 상회 이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우려의 위험 회피 강화에 상승 보였으나, FOMC의 테이퍼링 3월 종료 선언에도 추가 신호가 시장 예상 부합하며 달러 약세 전환
 - 중반, 미 CPI가 연속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선반영 된 측면에 따라 달러 강세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오미크론 우려의 위험회피 심리와 인플레이 압력 지속에 따른 연준 긴축 우려 등으로 상승 추세 유지
 - 이후,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높인 결과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는 인식으로 달러는 약세를 시현하며 오히려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연말 저점 인식 결제수요 유입이 하단을 제한
- 후반, 오미크론 변이 완화 속 글로벌 증시 상승세에 위험 선호 영향 반영되는 양상 보인 후, 연말 거래 부진 속 수급 상황에 등락 보인다, 미 국채금리 급등 반영하며 상승 흐름으로 마감
 - 후반, 세계적 오미크론 변이가 연말 완화되며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원화 강세 영국
 - 이어, 연말 거래 부진과 주요 이벤트 부재 속 수급 상황 등락 나타난 가운데 마지막 거래일 미 국채 금리 급등 함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 반영으로 원화 약세에 환율 1,18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며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지수 추이



12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84
12월말 달러/원 환율 : 1,188.8

1월 전망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 지속되며 달러 강세 견인할 전망 속에 주요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이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190 ^(F)	1,155 ^(F)	1,170 ^(F)	1,195 ^(F)

대외 인플레이션 상황 이어질 가운데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 지속 영향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요인

오미크론에도 국내 성장 경로 지속 가능성 속에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달러 대비 상대적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

1월 달러/원 환율
1,190 ~ 1,205원 변동 예상

- 미국 대내외에서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와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연속적 금리인상 기대가 2022년 초반부터 달러 강세를 견인할 주 요인으로 예상
 - 미국내 CPI추세가 지난 10월 31년만에 6.2%최고치 경신 후 이어 11월에도 6.8%를 기록하는 인플레이션 강세 상황이 지속되는 양상
 - 이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미국에 주요 변종이 되었음에도 연준의 경기에 대한 매파적 성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연속적 금리인상 기대가 강화 추세 보이는 점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할 전망
- 대내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경증에 그치는 인식 속에 급속도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전망에 따른 증시 등에서의 외국인 긍정적 수급 가능성 속에 금융 불균형 완화 이슈에 의한 한은의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대내 요인에 의한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
 - 국내 오미크론 확산 지속에도 위중증 확대 제한 인식 속 경기전망 경로가 급속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탄력을 받는 요인이 증시 등의 긍정적 수급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은 원화 강세 지지할 전망
 - 여기에 1분기 국내 대선 이벤트에도 예상 성장 경로 유지 및 금융불균형성을 우려하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증하는 측면도 원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적 중국 통화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에 내재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해당 이슈 발생 시점에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중국 헝타 이슈 이후 통화완화적 기조에도 오히려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 관련 미-중 갈등의 국내 전이 우려 속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의 상존이 내재적 위험회피 요인으로 표면화 될 시, 상당한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금리인상 반영한 연준의 매파적 행보 · 중국 통화완화 기조가 중국 경제불확실성 반영한 위험회피 요인 인식 · 미-중,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시 등에서의 긍정적 외국인 수급 ·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요인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인플레이 상황을 반영하여 높아지는 가운데 BOJ의 완화적 기조, 더딘 경기 회복세 등으로 약세 흐름 이어질 전망. 엔/원 환율은 대외 달러 강세 반영 속 한은의 매파 성향 반영이 상대적 원화 강세 견인하며 약보합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

12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3.9
12월 엔/원 평균환율 : 1,039.1

1월 엔/원 예상범위 : 1,015~1,040

- (동향) 연준의 매파적 기조, 오미크론 확산이 엔화 방향성에 상충되며 등락 출발. 이어 인플레이 압력에 따른 미 금리 상승 반영하며 약세 보였으나, 헝다 사태, 오미크론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강세 전환. 중반, FOMC결과가 불확실성 해소에 받아들여졌음에도 미 금리 상승 이어진 영향 등으로 엔화 약세 이어진 양상. 후반 들어, 터키 리라 가치 하락, 미 재건법안 무산 가능성에도 오미크론 변이 완화 속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따른 달러 강세로 약세 흐름. 엔/원 환율은 매파적 연준 영향 반영된 미 금리 상승에 엔화 약세가 상대적 우위 보이며 하락
- (엔/원 전망)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추세적 안전자산 선호 강화요인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지속적 완화정책, 연준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등에 따라 엔화 약세 흐름이 다소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유럽 오미크론 확산세 등에도 낮은 치명률 등으로 추세적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여기에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행보,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의 반영 속에 대외적 미 금리인상 기조를 반영한 대내 금리차 확대 등이 엔화 약세를 다소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 엔/원 환율은 연준 금리인상 기대에도 국내 금통위의 매파성향 반영에 따른 상대적 원화 강세 속 약보합 흐름 예상

유로/원 전망

오미크론 불확실성을 유로존이 크게 받고 있으나, 점진적 통화정상화 기조 진입 등이 미 달러 강세에도 약세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로/원은 상대적 원화의 약세 우위 예상에 상승 추세 유지될 전망

12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06
12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38.6

1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35~1,365

- (동향)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속 유로존 11월 제조업지표 부진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약세 출발. 이어, ECB 완화적 기조도 약세 영향 미쳤으나, 오미크론 변이 약화 등이 상단 제한. 중반, 미 CPI상승, 오미크론 재확산이 유로 약세 전환 후, FOMC의 테이퍼링 강화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인식되며 유로 강세 지속. BOE 금리인상도 유로 강세 지지 요인. 후반, 백신의 긍정적 소식 등이 유로 강세 견인한 가운데 연말 거래 부진 속 변동성 약화하며 강세 마감. 유로/원 환율은 매파적 연준 기조에 따른 달러 강세가 상대적 원화 약세 견인함에 따라 상승
- (유로/원 전망) 유럽 오미크론 급증세에 따른 경제 리오프닝 지연 등이 유로 약세 요인이나 3월 PEPP 종료 결정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등이 유로 약세 제한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내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경제의 완전 리오프닝 지연에도 변이 치명률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로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플러스 전환 등이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전망
 - 여기에 ECB의 PEPP3월 종료 결정 등 부분적 통화정상화 움직임도 유로 강보합 요인. 이에 유로/원 환율은 미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 강세를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원화의 약세로 상승 추세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1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p>*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0안은 이전치</p>						
2	3	4	5	6	7	8
	<p>한 12월 수출/수입(32.1%/43.6%, YoY) 12월 무역수지(\$3087M) 12월 Markit PMI 제조업(50.9) 미 12월 Markit 제조업 PMI(57.8) 유 12월 Markit PMI 제조업(58)</p>	<p>미 11월 건설지출(0.2%, MoM) 중 12월 Caixin 제조업 PMI(49.9) 일 12월 지분 은행 PMI 제조업[F]</p>	<p>미 12월 ISM 제조업지수(61.1)/ISM 고용(53.3) 12월 ISM New Orders(61.5) 12월 ISM 구매물가지수(82.4) 12월 Markit PMI 종합(56.9)/서비스(57.5) 유 12월 Markit PMI 종합(53.4)/서비스(53.3)</p>	<p>한 12월 외환보유고(\$466.91b) 미 12월 FOMC 회의록 공개 11월 무역수지(-\$67.1b) 유 11월 PPI(5.4% MoM, 21.9% YoY) 일 12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51.1)/종합(51.8) 중 12월 Caixin 종합 PMI(51.2)/서비스 PMI(52.1) 독 11월 공장수주(-6.9% MoM, -1.0% YoY) 11월 산업생산(2.8 MoM, -0.6% YoY)</p>	<p>미 12월 ISM 서비스(69.1) 11월 제조업수주(1.0%) / 내구재주문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0.3% MoM, 4.8% YoY) 12월 경제활동 참가율(61.8%) 12월 제조업 임금변동(31K) 유 11월 소매판매(0.2% MoM, 1.4% YoY) 12월 CPI(0.4% MoM, 4.9% YoY) 일 12월 도쿄 CPI(0.5% YoY) 11월 실질 임금총액(-0.7% YoY)</p>	<p>미 11월 소비자신용지수(\$16.897b) 일 11월 가계 소비지출(-0.6%, YoY) 중 12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270.0b)</p>
9	10	11	12	13 美 Beige Book 발표	14 韓 금융통화위원회	15
	<p>유 1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13.5) 11월 실업률(7.3%) 중 12월 통화금 M0(7.2%, YoY) 12월 통화금 M1(3.0%, YoY) 12월 통화금 M2(8.5%, YoY)</p>	<p>한 11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독 12월 도매물가지수(1.3% MoM, 16.6% YoY)</p>	<p>한 1월 통화금 L(0.7%, MoM), M2(1.1%, MoM) 미 12월 CPI(0.8% MoM, 6.8% YoY) 12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1.9%, YoY) 12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1.9%, YoY) 유 11월 산업생산(1.1 MoM, 3.3% YoY)</p>	<p>한 12월 수출물가지수(-1.0% MoM, 25.5% YoY) 12월 수입물가지수(-0.6% MoM, 35.5% YoY) 미 12월 PPI(0.8% MoM, 9.6% YoY) 일 12월 통화량 M2(4.00%, YoY), M3(3.6%, YoY) 12월 공적기계 수주 전년비(64.0%)</p>	<p>한 1월 BoK 7일 Repo 금리(1.00%) 미 12월 수출물가지수(1.0% MoM, 18.2% YoY) 12월 수입물가지수(0.7% MoM, 11.7% YoY) 12월 설비가동률(76.8%) 12월 제조업(SIC) 생산(0.7%) 12월 광공업생산(0.5% MoM) 일 12월 PPI(0.6% MoM, 9.0% YoY) 중 12월 무역수지(\$71.72b) 12월 수출/수입(22.0%/31.7%, YoY)</p>	<p>Fed's Bullard Discusses the U.S. Economy and Monetary Policy</p>
BOE's Catherine Mann speaks on world economy						
16	17	18 BOJ 통화정책회의	19	20	21	22
	<p>일 11월 핵심기계수주(3.8%, MoM) 11월 핵심기계수주(2.9%, YoY) 12월 전국 백화점 판매(8.1% YoY) 12월 도쿄 백화점 판매</p>	<p>유 1월 ZEW 서베이 예상(26.8) 11월 건설생산(1.6% MoM, 4.4% YoY) 일 11월 광공업생산 11월 설비가동률(6.2% MoM) 1월 일본은행 정책금리잔고(-0.1%) 1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 독 1월 ZEW 서베이 예상(29.9)</p>	<p>미 12월 주택착공건수(11.8% MoM) 12월 건축허가(3.6% MoM) 1월 NAHB 주택시장지수(84)</p>	<p>한 12월 PPI(9.6%, YoY) 미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5.4) 유 12월 CPI(4.9% YoY) 일 12월 수출/수입(20.5%/43.8%, YoY) 12월 무역수지(- \$954.8b)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8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5%) 독 12월 PPI(0.8% MoM, 19.2% YoY)</p>	<p>미 12월 기준주택매매(1.9%, MoM) 일 12월 전국 CPI</p>	<p>미 12월 섀틱스(1.1%)</p>
23	24	25	26	27 美 FOMC	28	29
	<p>미 12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37)</p>	<p>미 11월 FHFA 주택가격지수 독 1월 IFO 기업환경지수(94.7)</p>	<p>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 미 1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 지수 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자기대지수 일 12월 PPI 서비스</p>	<p>미 FOMC 금리 결정(0.00% ~ 0.25%) 1월 미연준 준비금잔고 금리(0.15%) 4Q GDP물가지수 / GDP연간화QoQ 4Q 개인소비 독 2월 Cfk 소비자 기대지수(-6.8)</p>	<p>미 12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일 1월 도쿄 CPI</p>	<p>미 1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연황 1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1월 PCE 디플레이터</p>
30	31					
	<p>미 1월 MNI 시카고 PMI 유 4Q GDP(3.9% YoY)</p>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